

진부(陳腐)를 논함

On Banality

2005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의 오후는 뜨거웠다. 우리협회 회장 선거의 개표는 이미 끝났고, 감사의 개표 후 예정된 그 발표를 기다리는 우리 대의원들의 표정은 때맞추어 봄 소풍 온 초등학교 학생들 모양 즐거워 보였다. 이 절대 절명의 긴박함 속에 그들이 어찌 웃음으로 보이고 있을까. 인동의 세월에서 인고하며 봄을 기다렸으니 결국 그 봄이 왔음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26대 우리협회의 회장을 400여명의 대의원의 손으로 점지하였다. 그즈음 노무현 대통령은 제37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화해와 포용이다'라며, 또 '나와 뜻이 다를 때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976년 11월 30일 제13회 수출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우릴 못사는 민족이라 했습니까'라며 분연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선포하였고, 여기 참석한 모두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춘궁기며 초근목피로 부항 들어 자조하던 우리 민족이 그 대업을 이루었던 것이다. 2003년 육군사관학교 김충배 교장은 1964년의 국민소득 100불을 성취를 놓고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4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생도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 전의 우리 국민소득은 120여 유엔 등록국 중 꼴찌인 인도보다 하나 위였다. 우리는 빗바랜 잠방이에 해소하여 해쓱해진 얼굴로 우리 땅을 일군 그 조상들의 후예들이다. 이 조상을 그 누가 경시 하는가.

1965년 10월 우리 협회가 건축사의 응지를 품고 창립하였고 그로부터 40년째이다. 인생에서 미혹 되지 않는다는 불혹지년이다. 전문직 종사자인 건축사가 사회적 홀대를 감수해야 함은 세대의 구분 없이 거울 속으로 보는 자화상일 수 있다.혹시 속이 빈 풍요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한다. 그나마 그 간의 어려움을 용케도 잘 견디며 이 시점의 자리 매김을 한 게 우리 조상과 선배들의 공이리라. 그간 우리에게 모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도 있겠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는 강이었다. 탐욕과 선행이 공존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이치이고 우리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울트라를 원하는 신세대와 이에 저항하는 묵은 세대가 갈등하며 공존하고 있다. 적절한 발효의 묵은지라 불리우는 묵은 김치가 영양가가 더 한다고 하지만 한편 패스트푸드에 길든 신세대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묵은 김치 음식을 꽤 맛있게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적절한 발효도 신세대의 구미를 자극함이라. 그러함에도 한편 이들은 꾸준히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이분론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적절한 발효는 우리에게 유익하나 지나치면 전부를 상하게 한다. 또 호흡이 끊기면 그것도 죽음을 의미한다. 해수면 보다 420여 미터가 낮은 사해에도 쉬지 않고 물은 공급 되나 더 흐르지 못하고, 썩지는 아니하나 염분에 의해 생명이 부지하지 못한다. 그에 인접한 갈릴리호는 물의 듨과 남이 있어 생명을 품고 있다.

우리 협회원의 약30퍼센트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고루하고 진부하다고 탓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같은 동아리라 여기며 상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 선배가 걸어왔던 길 위에 동역자로 우리 함께 서 있다. 이제 불혹에서 지천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를 알라 함이란다. 우리의 소명에 깃발을 걸고 정진해야 한다. 깃발은 바람이 없으면 미동하지 않고 역동성을 잃는다. 깃발은 바람에 신바람 나게 펄럭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인 시절이 종진을 지나 선진을 향하고 있다. 이 바탕에 초석이 되었던 값진 교훈들이 바탕 그림으로 수놓아져야 한다. 우리 협회의 변란들이 밑거름이 되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게 하고, 상생의 논리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간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반향이 성숙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본다.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국가별 '국민 행복감' 조사를 한 결과 자연 재해로 늘 시달리며 국민총생산의 성장속도가 인구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계 3대 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1순위이며,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못 선진국을 제치고 23위란다. 행복과 부귀는 별개이며 어려움이 많음은 인생사 당연지사이고 비감만으로 점철하지 않는다.

우리 건축사 업무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로 청사진을 굶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몇 년 후부터는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다 한다. 반년 단위의 변하던 정보 체제가 이제 월단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빠름에 빗대어 우리 조상과 우리 아버지의 시대를 누가 휘파하는가. 급진의 진화는 돌연변이로 변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진부도 하나의 피치 못할 자연 현상임이 분명하다.

무질서가 심하게 확장 되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다. 그 새로움이 초기와 같은 무질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엔 은근한 뜬미 배어 깊은 맛을 느끼게도 한다. ▣